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할,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차가운 네 마음을 열라 (마르 7: 31-37)

장학생 선발 라구나힐스교회

라구나힐스교회(담임목사 립학준,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가 2023 장학생을 선발한다.

응모 자격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또는 오는 가을학기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선발 인원은 10명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교회 홈페이지(www.lagunaum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구나힐스교회는 오는 22일(월) 오전 10시 도브캐년 골프클럽(22682 Golf Club Dr., Trabuco Canyon, CA 92679)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18홀 샷건 방식의 골프대회를 연다. 참가비는 120달러다. 1차 참가 신청 마감일은 5월 7일이다.

문의: (949) 380-7777, (515) 451-3398

국가기도의날 기도회 나성순복음교회

제 72회 국가기도의날 기도회가 5월 4일(목)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에서 열린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 기도회는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올해 국가 기도회의날 기도회 주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이다.

미국 국가 기도회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국가기도의날로 지정해 매년 이날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귀먹은 반병어리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려고 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눈은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 (참조: 이사 6, 9-10; 마태 13, 14-15)이라고 탄식한다.

아무리 우리의 귀가 건강하여 갖가지 소리를 잘 듣는다 하여도 정작 우리가 듣고 따르며 실천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귀머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입과 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입에서 탐욕스러운 말이나,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이나, 남의 삶에 독침을 쏘는 듯한 말만이 나간다면, 우리 또한 '참된 말'을 할 줄 모르는 병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세, 영예만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 앞에서 눈뜬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를 자신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복음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눈과 귀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귀먹은 반병어리를 치유하실 때 '에파타!' ('열려라!'를 뜻하는 아람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오늘의 우

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차가운 네 마음을 열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네 눈을 떠라!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네 귀를 열라! 진리와 사랑의 말이 잘 나오지 못하는 반병어리가 된 네 입과 혀를 열라!"

여기서 세례예식 때, 들은 적이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교회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이 성세예식 때 (흔히 생략하기도 하지만) 이른 바 '에페타' 예식을 가져왔다. 세례예식을 거의 마치면서 세례받은 어린이의 귀와 입을 엄지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신 주 예수여, 이 자녀가 오래지 아니하여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천주 성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세례 때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주로 우리 인간 편에서

마음과 눈과 입을 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자세에 앞서야 하는 더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귀먹은 반병어리'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열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앞서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희망의 근거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즉 대화를 해가면서 '인간'이 되어간다. 갓난아기가 하루하루 자라나 어느덧 "엄마! 아빠!" 하고 말을 걸어오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런데 사실 그 맑은 소리의 아기의 부름은 그 아기 엄마 아빠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그 아기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아기의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다.

-김영남 신부-
일러스트=shutterstock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